전력기기 3사, 美 투자확대 자신… "中 딥시크, 걸림돌 아냐"

中 딥시크에 '전력소비 감소' 우려
업계, 우려 과도… 큰변화 없을 것
되레 美 AI기술 투자 촉진 가능성

중국 딥시크사의 오픈소스 모델이 적은 자원으로도 고성능 인공지능(AI)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전력 소비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과도한 우려라고 꼬집는 분위기다. 비용 효율적인 AI모델이 등장하더라도 AI 연산 수요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력 소비의 구조적 증가세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AI 개발 스타트업 딥시크가 지난 1월 20일 '딥시크-R1'을 선보이며 최소한의 자원으로도 높은 성능을 내는 AI 모델을 구현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력 소비 감소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국내 전력기기 업계는 전력 수요 급증을 예상해 증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기대보다 줄어들 경우 설비 투자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지난 7일 HD현대일렉트릭이 'HD현대일렉트릭 울산 변압기 스마트 공장 투어'를 실시했다.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일렉 내년 초 4000억 투입
美·울산 변압기 생산량 30% 확대

LS일렉 테트라 테크와 업무협약
미국 비롯 글로벌 전력시장 공략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 멤피스에
초고압 변압기공장 시험라인 추가

그럼에도 전력기기 업계는 AI 개발 효율성이 개선되더라도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3사(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효성중공업)는 지난해 나란히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HD현대일렉트릭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69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12% 뛰었으며 LS일렉트릭은 지난해 영업익 3897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9.96%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효성중공업 또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36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세계 전력 인프라 신규·교체 수요가 급증한 점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가 예상되면서 업계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망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력기기 업계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수요 지속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를 잡는데 지속 집중할 방침이다. 2026년 초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앨라배마와 울산 변압기 공장 생산량을 30% 끌어올린다. 울산공장을 증설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을 연 30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 생산 능력 또한 연 100개에서 최대 150개로 증설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기업 테트라 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전력 시장 동반 공략에 나선다. 양사는 전력솔루션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보유한 네트워크와 인지도를 활용해 시장 맞춤형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안해 사업 확대를 추진할 전략이다.

효성중공업도 미국 시장 수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테네시 멤피스에 초고압 변압기 공장 시험 라인을 추가하고 시험·생산설비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딥시크의 부상이 미국의 AI 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시장의 확장세도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기술의 발전이 미국의 AI 투자 확대를 견인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전력기기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로서는 시장 변화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부족한 만큼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업계 전반이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말하는 AI' 시장규모 5년내 56조 성장

프랑스 큐타이, 음성 AI '모시' 공개
인터넷연결 없이 0.2초내 음성 생성

구글·오픈AI, 작년 음성강화 AI 출시
네이버·카카오도 AI 역량강화 나서

인공지능(AI) 기술이 텍스트 기반에서 멀티모달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음성 AI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음성 AI 기술을 고도화며 스마트폰을 넘어 차량, 가전, 미디어 플랫폼 등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멀티모달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포함한 다양한 AI를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5일 시장조사기관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음성 AI 시장 규모는 2024년 20조원에서 2029년 56조원으로 3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가트너 측은 "음성 인식과 자연스러운 대화 기능이 결합하면서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픈소스 vs 폐쇄형'…음성 AI 패권 경쟁 '본격화'

음성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패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AI 업계는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뉜다.

하나는 오픈소스 AI 진영이다. 메타, 모질라, 큐타이, 코키 등은 AI 음성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메타는 4000개 이상의 언어를 인식·생성할 수 있는 'MMS'를통해 오픈소스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MMS는 학습용 꼬리표(라벨) 없이도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

GPT로 생성한 ''을 담은 AI 이미지.

프랑스의 오픈AI라 불리는 AI 연구소 '큐타이'는 최근 '모시(Moshi)'라는 음성 AI를 공개했다. 모시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하며, 0.2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음성을 생성한다.

반면 오픈AI,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폐쇄형 모델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은 멀티모달 기능을 강화한 음성 AI '제미나이 2.0'을 지난해 12월 출시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했으며, 10가지 목소리를 제공해 톤과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픈AI도 한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50개 언어의 사용을 개선한 챗GPT '음성 모드'를 지난해 12월 출시했다. 음성 발화 속도 조절과 화자의 감정 인식 기능을 추가해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한다.

애플도 음성 AI '시리(Siri)'에 챗GPT를 통합할 계획이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해 일부 기능을 2025년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홈팟, 아이폰, 맥OS 전반에서 더욱 자연스럽고 정교한 음성 인터페이스가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소스 모델은 기술 접근성을 높여 빠르게 확산되지만, 폐쇄형 모델은 강력한 성능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며 "각각의 강점이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더욱 확장시키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딥시크는 올해 초AI 추론 모델 'R1'과 함께 음성 AI '딥시크보이스'를 공개했다. 텍스트와 음성을 동시에 처리하며,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할 수 있어 스마트폰, 차량 내장 AI, 스마트홈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기능 강화 위해 분주

국내 기업들도 음성 AI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는 AI 챗봇 '클로바X'에 정보 검색 도우미 기능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AI 음성 비서 '카나나'를 개발 중이다. 카나나는 개인용 AI '나나'와 그룹채팅용 AI '카나'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나나는 일대일 대화에 참여하고 그룹 대화 내용을 기억해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한다. 카나는 그룹 채팅에 특화되어 퀴즈 생성, 답변 채점, 요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카카오 아이(i)' 음성 비서는 현재 카카오T·쇼핑·뱅킹 서비스와 연동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텍스트 기반→멀티모달 환경 진화

서부발전, 혁신 아이디어 10건 개발 추진

공모전 수상작 발전소운영에 접목

한국서부발전은 회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전소 운영혁신을 위한 '스마트기술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 3주간 설비 신뢰도 향상, 스마트 점검 구현, 업무 효율성 증대, 신사업모델 창출 등 5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한 결과 50건의 제안을 받았고, 사내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6건 등 총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데이터 기반 동적 공정 모델 생성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트윈(가상모형) 환경구축'을 제안한 태안발전본부 이진형 차장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발전설비 누설점검용 자율주행 로봇 도입'을 제안한 군산발전본부 강호민 사원 등이 받았고, '빅데이터 기반 풍력발전소 출력예측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 태안발전본부 이정민 과장 등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을 발전소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장단기 과제로 구분한 뒤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설비 신뢰도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 관련 신기술은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신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 전폭지원"

崔 대행, 청년들과 오찬간담회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층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청년 대표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전시, 소개됐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